

## 신년 법어

새해의 밝은 빛이 청정한 모두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여의원만(如意圓滿)하게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영특함과 민첩함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원숭이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국민 여러분께 웃음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지나오며 고난과 격동의 현대사를 잘 이겨온 저력과 힘을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의 분단과 사회갈등,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편을 가르고, 한 쪽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진중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즉심시불(卽心是佛),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처럼 한 생각만 돌리면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치가 있고, 눈 닿는 곳마다 극락이요, 서로 화합하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상생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1236년 병신년에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 팔만대장경 불사(佛事)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세상을 맑게 보는 청정심과 진중함으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갑시다.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자들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아 제시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할 때 모두가 상생과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와 한국 사회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한국불교의 역할과 손길을 요청하는 주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교, 그리고 불자로서의 정진과 안위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깊이 이해하고 뜻을 모아 주고 있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백천입해(百川入海) 동일함미(同一鹹味)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방에서 흐르는 냇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동일한 맛을 낸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도 여러 종단이 있지만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모두가 똑같은 불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불교 구성원 모두가 한 물줄기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늘 그래오셨듯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취를 반드시 불자와 국민에게 회향하겠다는 종교적 책무 속에서, 같은 맛 같은 향기로 힘차게 새해를 열어갑시다.

오늘 이 신년법회를 맞아 상호 존경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한국불교 지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의 청안함 속에서 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을 새해의 선물로 준비하시어, 공덕을 나누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2560(2016)년 1월 1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